

정책이슈 | 박재영 정책조정실

※ 이번호 원고는 7월 21일에 작성되었기에 21일까지 마감된 3차례 설명회만을 다름을 양해바랍니다.

#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방안 설명회 결과보고



NH



## 농협개혁위원회, 전국 순회 신경분리안 설명회 개최

수입농산물이 국내 농산물 시장을 위협하고, 대형유통업체와의 경쟁에서 농협의 유통사업이 점유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농협중앙회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협중앙회가 지난 8일부터 전국의 조합장들에게 자체 신경분리안 설명회를 갖는 등 농협중앙회와 정부, 농민단체 간 각각의 신경분리안을 관철하기 위한 논의가 뜨겁다.

농협중앙회의 자체 설명회에 발맞춰 지난 3

월 한농연과 전농, 학계 등 민관이 참여하여 구성된 농협개혁위원회(위원장 김완배, 서울대 교수)가 전라북도를 시작으로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 방안 설명회'에 들어갔다. 21일 현재 전라북도를 시작으로 충청북도, 충청남도 등 3개 도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총 300여명의 농업인과 농협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상황을 이뤘다.

설명회는 1부 농협개혁위원회의 설명시간, 2부 농업인과 농협관계자의 질의 및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으로 나누어 농협개혁위원회에서 제출한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궁극증을 풀어갔다.



농협개혁위원회가 주최한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방안 설명회"가 7월 15일 전라북도를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된다.(이 사진은 7월 15일 전라북도에서 있었던 설명회 장면.)

참석자의 대부분들은 농협개혁위원회의 지주회사 방식의 사업 분리 방향에 대해 궁금증과 의문을 갖으면서도 경제사업 중심의 자본금 배분과 농협의 유통사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기업적 경영방식이 가미되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 동조하는 분위기였다. 특히 농민조합원들은 이 자리에서 지금껏 농협이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다면서 농협개혁위가 농민조합원의 입장에서 보다 힘 있게 농협개혁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전국 순회 설명회에는 김완배 교수(농협개혁위원회 위원장), 황의식 박사, 손재범 한농연 총장, 기원주 전농 위원장 등 농협개혁위원회 신경분리안 도출에 직접 참여하였던 위원들이 설명회에 참석하여 취지와 방향, 신경분리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게 된다.

## ●● 농협개혁위원회,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협 신경분리 중요성 강조

설명자로 나선 농협개혁위원회의 위원들은 먼저 신경분리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시장 개방 등 농업 내·외부 환경변화, 영세한 경제사업 구조, 신용사업의 위기 등이 그것이다. 농협개혁위원회는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대형유통업체 시장지배력 확대 등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반해 농가의 농업소득은 정체돼 있어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농협중앙회 사업은 “인력구조가 신용사업에 치중돼 있고 경제사업



20일에 있었던 충청북도 설명회에서 신경분리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손재범 한농연 사무총장

은 고임금 구조를 형성하고 있고, 신용, 경제, 지도 등 이질적 성격의 사업이 혼재돼 있어 사업부문별 성과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협개혁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신경분리 방향에 대해 경제사업 활성화와 조합의 운영 활성화를 최우선 목표로 설명했다. 이를 위해 △경제사업 부문의 충분한 자본금 우선 배분 △신용사업 건전성 유지 및 경쟁력 제고 △상호금융연합회 설립을 통한 조합수의 제고 등을 핵심전략으로 신경분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농협개혁위원회의 방안을 통해 경제사업 쪽에 있는 자본금을 활용해 시설 현대화나 유통비용 절감 등을 추진할 수 있고, 식품가공 사업 진출 등 다양한 사업 확대가 가능해 진다고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농협개혁위원회는 농산물 시장에서 농협의 경제사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재의 자본금만으로 불충분하기 때문에 농협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경제지주회사 배분 5조6천억 뿐 아니라 경제지주와 신용지주 전체 자본금을 가진 농협경제연합회가 농협금융지주에 출자해 출자 배당에 의한 이익금을 계속해서 경제사업 부문으로 가져 온다는 계산이다.

특히 필요시 농협금융지주회사는 상장시켜 매각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농협의 1금융권도 농협사업의 일부이고, 차후에 경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1금융권을 매각할 수

있지만, 금융지주회사를 통해 신용사업의 가치를 충분히 끌어올린 후 매각대금을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경제사업에 자금을 끌어들이는데도 좋다는 판단을 했다고도 부연 설명했다.

1부의 마지막에서 농협개혁위원회는 “농협중앙회를 경제사업 중심의 농협경제연합회로 전환하면서 경제사업은 시장대응 능력을 강화하도록 농협경제그룹체제로 전환해 기업적 경영을 강화하는 것이 농협개혁위 신경분리 방향”이라며 “여기에 중앙회 신용사업은 건전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농협금융그룹으로 분리 전환하고 일선조합의 상호금융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상호금융특별회계를 상호금융연합회로 독립화해 법인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했다”고 전했다.



## 바쁜 영농기 농업인들의 농협신경분리에 대한 관심은 뜨거워

이 같은 설명에 대해 설명회에 참석한 농민 조합원들과 농협관계자들은 농협개혁위원회의 신경분리 방향에 대한 구체적 질문부터 농협개혁위에 대한 당부의 말까지 다양한 의견들을 쏟아냈다.

그 중 한 가지는 역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신경분리에 있어 맥킨지안, 농협개혁위안, 연합회 체제안 등 다양한 분리 방안에 대한 차이점에

대한 질문이었다.

농협개혁위원회는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가 위탁한 맥킨지 보고서는 이미 논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만큼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만을 살리기 위한 방안이라며, 맥킨지안의 경우 농협중앙회 자본금 12조원 중 10조원을 금융지주회사 쪽에 가져가는데 있어 논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개혁위안이 맥킨지안과 다른점은 자본금 배분을 경제사업에 집중하고, 조합의 상호금융을 살리기 위한 쪽에 치중했다는 점에서 엄연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개혁위안과 연합회안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2017년에 하기로 했던 신경분리안이 연합회체제이기 때문에 연합회체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려했었으나, 연합회 체제의 경우 신용사업에 출자한 자본금이 경제사업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농협개혁위원회가 중점을 두는 경제사업에 있어 언제든지 신용사업의 이익금을 경제사업쪽으로 끌어올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불가능하고, 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15일 있었던 전라북도 설명회에서 정주성 한농연 전라북도연합회장이 대회를 여는 인사말을 하고 있다.

도 연합회체제보다 지주회사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농협개혁위 안은 경제사업 부문의 다양한 자회사들을 관리하기 위해선 경제지주회사를 두는 것이 효율적이란 얘기며, 연합회체제안은 경제지주회사를 둘 경우 기업적 이윤추구에 매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양 쪽 방안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역농협의 직원들은 금융지주회사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농협개혁위원회의 안은 금융지주회사를 통해 자본금 확충을 위해 외부자금의 유입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신용사업부문이 외국자본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농협개혁위원회는 농협의 1금융권은 협동조합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1금융권의 존재 이유는 농협의 경제사업과 상호금융의 건전성을 목표로 할뿐 기업이라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사업이 계속 성장하는데 내부축적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금융지주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헤지펀드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1금융권은 토종 민족자본을 지킨다는 상징성을 국가적 차원에서 고민해야 하지만, 경제사업의 수익마저 계속해서 위협해야 한다면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려 매각하고, 경제사업의 자본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설명회 자리에는 축협 등에서 조합장도 참여했다. 조합장들은 경제지주회사가 현 축산경제,

농업경제가 각각 분리되어 서로 독립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지를 궁금해 하고, 농업분야가 갈수록 축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경제지주회사 내 축산과 농업경제를 분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농협개혁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안된 것은 사실이지만, 축산업에 대한 독립성에 대한 필요성은 알고 있다면서 축산경제 부분이 분리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는 말을 전했다. 농협개혁위원회 활동의 1차결과인 농협법 개정에서도 농협중앙회에서 축산경제 대표를 농업경제 대표에 합쳐줄 것을 건의했지만, 축산경제의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존속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축산경제와 농업경제의 분리로 끝날 것이 아니라 품목별 조합의 활성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축산 중에서도 품목별로 묶어주고, 타 분야도 품목별 전문 농협의 육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합장들도 이에 대한 힘을 실어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품목조합의 선전과 이를 위한 자본의 지원이 중요한 만큼 신경분리 방안에 경제사업에 대한 충분한 자본금 배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농민조합원의 경우 농협개혁위원회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까지 연합회 방식과 농협개혁위원회의 지주회사 방식이 크게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설명을 들으니 경제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조합 중심의 사업을 육성하겠다는 기본 취지가

같아 보여 농협개혁위원회의 안에 동조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지주회사라는 단어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주로 금융그룹에서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설명을 듣기 전에는 단어에 대한 거리낌을 갖을 수 있기 때문에 농협개혁위원회의 설명대로 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방식이라면 지주회사라는 단어를 순화하여 표현하는 것도 농업인이 이해하고, 동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한 농민조합원은 “농협이 그동안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농협개혁위원회의 신경분리를 통한 사업구조 개편으로 농협의 정체성 회복을 기대하는 것”이라며 농협개혁위원회의 보다 강력한 관철 노력과 “향후 논의에 있어서는 신경분리를 통한 조합의 활성화를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 것인지 등에 대한 피부에 와 닿는 논의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은 개혁 대상인 농협이 개혁 주체가 돼선 안 된다면서 기술적 부분은 나중에 보완하더라도 농협개혁위원회가 선명한 색을 갖고 농민들에게 호응을 얻어낼 수 있는 신경분리 방안을 힘 있게 끌고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